

# “틱광득 스님 분신은 최상의 항거”

## 박금표 연구교수 ‘베트남 근대화에 미친 불교의 영향’ 주제 발표서 주장

1963년 6월 11일, 베트남에서 틱광득(Thich Quang Duc) 스님이 소신공양을 했다. 당시 친미·친가톨릭 성향의 응오 딘 지엠(Ngo Dinh Diem)정부의 불교도들에 대한 탄압에 호소하기 위함이었다. 이 때 도로 한복판에 앉은 스님의 몸에서 불길 이 타오르면 사진은 전 세계인들을 충격에 휩싸이게 했고, 스님의 소신공양을 두고 자살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박금표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는 9월 30일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박인성)이 동국대 학림관에서 개최한 학술세미나 ‘아시아 근대불교의 다양성과 정체성’에서 ‘베트남 근대화에 미친 불교의 영향’을 주제로 베트남 지엠정부의 불교 탄압과 틱광득 스님의 소신공양의 의미를 살폈다.

박금표 연구교수는 “지엠은 반공주의를 기치로 미국을 끌어들이며 베트남을 전쟁터로 만들었고, 가톨릭을 기반으로 다수의 종교인 불교를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족벌정치와 부정부패를 일삼았다. 또한 종교박해에 항거하는 불교도들에게 무력을 행사해 시위는 점점 고조되고 있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틱광득 스님의 분신은 불교수행자로서 불제자로서 할 수 있는 최상의 항거였다”고 주장했다.

틱광득 스님의 분신을 소신공양으로 해석하는 경우와 자살로 해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박 연구교수는 “서구적 사고 혹은 종교적 정서를 기반으로 한다면 스스로의 생명을 끊는 일은 종교·사회적 윤리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며 “불교에서도 불살생을 중요한 계로 규정하고 있으며, 율장에는 자살을 금지하는 규정도 있다. 그러므로 불교적 정서를 기반으로 스스로의 생명을 끊는 것은 결코 칭송받을 일이 아닐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박 연구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틱광득 스님의 분신이 세상을 일깨운 소신공양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는 다른 생명을 위해 몸을 버리는 경우였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박금표 교수(위), 틱광득 스님의 소신공양 장면(오른쪽).



박 연구교수에 따르면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일’에 해당 되는 경우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아라한이 몸을 버리는 경우, 둘째는 깨닫지 못한 자가 욕망 때문에 몸을 버리는 경우, 셋째는 다른 생명을 위해 몸을 버리는 경우다.

박 연구교수는 “틱광득 스님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생을 구제하는 자비심을 발원해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경우인데 자타가에서 굶주린 호랑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을 던지는 이야기와 공양을 위해 스스로 불에 타 고기를 공양한 토끼 등의 예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틱광득 스님이 분신을 했던 시기는 베트남인들이 불교 박해, 독재, 전쟁 때문에 몸을 버리는 경우, 셋째는 다른 생명을 위해 몸을 버리는 경우다.

박 연구교수는 “틱광득 스님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생을 구제하는 자비심을 발원해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경우인데 자타가에서 굶주린 호랑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 지도력·외교력 거기에 보살행까지

## 사명성사 열반 400주기 추모학술세미나서 사명대사 재조명



배광식 교수(위), 사명대사 진영.

임진왜란 당시 승병장으로 활약했던 사명대사(1544~1610)가 열반한 지 올해로 400년째다.

사명대사는 전쟁의 종결을 위해 적장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와 3차례 회담하고 또 전쟁 후 일본에 사신으로 건너가 조선인 송환을 이끄는 등 외교 전략가로서 큰 역할을 했다.

사명성사 추모대제 봉행위원회는 10월 4일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사명성사 열반 400주기 제1차 추모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사명성사의 삶과 구국애민 정신을 재조명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배광식 서울대 지대 교수가 ‘사명성사의 수행 자적 면모와 그 의미’를 주제로, 박병기 한국교회대 윤리교육과 교수가 ‘국가지도자로서 사명성사의 위상과 그 현재적 의미’를 주제로 발표했다.

배광식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사명성사의 전후와 축성에서 보여준 지도력, 서생포 왜성에서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와 수차례 가진 담판 및 일본탐정사에서 보여준 외교적 능력 등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편이다”며 “하지만 억불승유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불교의 명맥을 잇고 중흥시킨 수행자적 면모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조명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배광식 교수는 사명대사의 수행 일대기를 살펴보고 그의 수행자적 면모를 조명했다.

유년시절 유학을 배운 사명대사는 학문을 배우고자 13세에 황악산



직지사의 신록대사를 찾아가 전등록을 읽고 선의 이치를 깨닫는다. 사명대사는 17세에 신록대사에게 득도한 뒤 18세(1561년)에 봉은사에서 선과(禪科)에 합격했다.

이후 사명대사는 직지사 주지(1573년)로 가기까지 15년간 봉은사에 주석하며 부지런히 수행했고, 틈틈이 사람과도 교류하며 4자(四子)를 배웠으며, 그 후 선종 수사찰인 봉은사 주지를 사양한 뒤 서산대사에게 법제자로 들어갔다(1575년).

배광식 교수는 “이후 사명대사는 임진왜란 발발시(1592년)까지 15여 년 동안 서산대사가 쓴 ‘선교결’과 몇 개의 계송이나 서(書)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가장 수승한 휴정의 법사(法嗣)로서, 임제선을 표방한 조계종 전통의 선사로 수선안거(修禪安居)와 유행(遊行)을 하는 등 30여 년간

수행생활에 진력했다”며 “전란과 전후에도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은 흔적이 여러 곳에 보인다”고 설명했다.

배 교수에 따르면 사명대사는 통불교를 지향한 조계종종대로, 당대의 제일 종장인 서산대사의 법제자가 돼 임제선을 근간으로 수행하면서, 교화에도 밝았고, 정도도 아올랐다.

배 교수는 “사명대사는 배불승유(排佛崇儒)로 어려움에 처한 조선불교역사의 중심에서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도, 해박한 유학지식을 가지고 사람과 교유(交遊)하며 불교 현량(顯彰)에 진력했다”며 “무엇보다 저자에 뛰어들어 제민제중(濟民濟衆)의 보살행을 했음을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밀양 표충사(주지 재경)는 10월 9~10일 ‘나라 구하기 사명성사(四溟聖師) 열반 400주기 추모대제’를 여는 등 사명대사 재조명 작업을 본격화한다. 조계종 총무원장이 추모대제 봉행위원장을 맡고 26교구 본사 주지 스님들이 봉행위원으로 참여하는 종단 차원의 대규모 행사다.

행사 9일에는 표충사 경내에서 사명성사 백일장이 열리고, 저녁에는 가수 태진아 현측 현숙 다비치 등이 출연하는 자비음악회도 개최된다. 둘째 날인 10일에는 추모제와 함께 성균관유도회총본부가 주관하는 다례제가 열리며 불교식 추모법회와 영산재 등이 함께 진행된다.

이나은 기자

## 뇌과학, 불교복지와 접목 가능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대외)은 불교가 가진 최대의 자산인 정신적 가치를 사회복지에 어떻게 접목하고 보급할 것인지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명상과 뇌과학의 불교사회복지적 적용” 주제로 9월 28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교육장에서 불교사회복지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는 최근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붓다브레인>의 역자로 잘 알려진 장현갑 영남대 명예교수가 강연을 했다.

장현갑 교수는 명상이 뇌와 마음에 미치는 영향과 K-MBSR(한국형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의 소개를 통해 명상 및 뇌과학이 불교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밝혔다.

장현갑 교수는 “부처님이 설한 고(苦)는 지금으로 말하면 스트레스다. 현대인에게 더 이상 학생제가 소용없게 된 이유는 바로 마음의 병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대의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이 고통과 괴로움을 호소하는 것은 ‘스트레스’ 때문이며 이를 ‘명상’과 ‘마음챙김’으로 치유를 해야 한다는 것이 장 교수의 설명이다.

장 교수는 “수년간 명상수련한

사람들과 명상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명상 수련시간과 뇌피질 두께가 비례한다”며 “나이 많은 수련자일수록 현저한 변화가 일어나며 뇌의 노화를 방지할 수 있다. 노인의 경우 명상이 전전두피질의 피질연약화 예방에 도움을 준다. 즉, 포뮬러 마음을 유지하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게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명상은 치료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한다. 복지가 고통에서 행복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명상은 현대인에게 필요한 정신복지의 핵심”이라며 “불교계 복지시설을 지원해 벗어나 명상과 마음챙김과 같은 정신적 지원을 의료·교육·노인·산일현장에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이나은 기자 bohjung@buddhapia.com

### #사명대사(1544~1610)

사명대사는 18세(1561년)에 승과에 응시해 봉은사에서 선과(禪科)에 합격했다. 사명대사는 32세(1575년)에 봉은사 주지로 천거되기도 했으나, 이를 사양하고 같은 해에 묘향산 보현사(普賢寺)에 주석하던 서산대사 휴정(西山大師 休靜)의 문하에 들어가 법제자가 돼 30여 년 모시고 수행을 하였다. 그 후 운수행각 끝에 43세(1586년)에 옥천산 상동암(上東庵)에서 오도(悟道)했고, 퇴락한 오대산 월정사를 중수하기도 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승병을

일으켜 평양성 탈환에 수훈을 세우는 등 승병대장으로 7년 전쟁을 치르며, 가토 기요마사의 진영으로 여러 번 들어가 회담을 벌이기도 했다. 이때 가토 기요마사가 조선의 보배가 무엇인다고 묻자, 가토 기요마사의 목이 조선의 보배라고 말해 그의 감명을 사들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때 사명성사는 일본으로부터 재침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조선 왕조의 능침을 훼손한 병사의 조선 이침, 3000여 명의 피로(被擄) 송환 등의 업적을 이루어냈고, 이후 300여 년간 조일교린(朝日交隣)의 길을 열었다.

# 제39회 전국일불문도의날 세계불교초대법왕 일불존자 전법제자 결집 대법회

## - 일불 서경보 존자 치아사리 최초 공개 친견 -

### 초대의 말씀

#### 귀의삼보하옵고

오곡백과가 무르 익어가는 계절에 국내외에 계시는 일불문도 여러분들의 사내(가내)에 부처님의 가피와 함께 일불존자님의 자비로운 은총이 항상 깃들기를 기원드립니다.

은 인류의 스승이시며 우리의 스승님이신 일불서경보 큰스님은 세계불교법왕초대법왕을 역임하시고 동국대학교불교대학장과 대한선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원, 경주 불국사 주지, 국가보위입법의원, 유엔전권대사(N.G.O), 철학박사 등 126개 박사 학위 등 수많은 행적을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난지 어느덧 15주년이 되었습니다. 전국일불문도중앙회에서는 일불큰스님 생존시부터 매년 10월 10일 전국일불문도의날로 제정하고 기념행사를 해 온 것이 어느덧 39회를 맞이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0월 10일(양력)이 일요일이 겹쳐 교통이 전국적으로 혼잡한 관계로 하루 연기하여 10월 11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내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전국일불문도(은,법,조,가,손,주,상좌 포함)여러분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동참하시어 우리의 스승님이신 일불존자님의 사상을 면훗날 까지 길이길이 빛낼 수 있도록 법석을 빛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다 음 -

◎행사제목 : 제39회 전국일불문도의날 봉축기념 세계불교법왕초대법왕 일불존자 전법제자 결집 대법회 (일불존자 제자 인증서 및 메달 수여) 일불존자 치아사리 최초공개 친견

◎일시 : 불기2554(2010)년 10월 11일(양력) 월요일 오전 11시~

◎장소 : 백범 김구 기념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255번지 효창공원내)

※점심공양 제공 ※주차장 원비



6호선 효창공원역 하차, ①번 출구로 나오셔서, 효창공원(효창문동장) 방향으로 10분거리입니다.

### 초청인

- 명예회장 : 봉해 현기홍, 무찰 김태현, 지산 김노, 도기 김팔영
- 회 장 : 의륜 서주범 (대회장)
- 상임부회장 : 법정 권용원
- 수석부회장 : 화엄 김광욱(봉행위원장), 송산 이종환
- 부 회 장 : 만주 조성수, 법장 송원진, 법공 김필영, 도천 박갑수, 영수 송창숙, 연화 주광석, 공심 황진익

- 서울지회장 : 덕산 박창식
- 경북지회장 : 일웅 김철우
- 전북지회장 : 고산 김향운
- 충북지회장 : 정일 신성범
- 경기북부지회장 : 해동 최승용
- 경기남부지회장 : 대명 정하웅
- 제주지회장 : 대성 송정옥
- 부산지회장 : 삼주 이영교
- 경남지회장 : 청과 안종익
- 강원지회장 : 각운 차우영
- 충남지회장 : 택봉 김재호
- 경기북부지회장 : 법천 박호선
- 울산지회장 : 청호 김영호
- 전남지회장 : 태광 양태선
- 사무총장 : 이봉 서병열
- 사서실장 : 무심 김상현